

서구 여성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눈썹형태의 특징

이 상 은* · 신 지 현†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뷰티디자인과 강사†

Characteristics on the forms of the Eye Brow over the Ages - Focusing on the western women -

Sang-Eun Lee* · Ji-Hyun Shin†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Beauty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nkuk University †
(2005. 2. 10. 접수; 3. 5.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on the changes characteristics of eye brow forms of the wester women. A facial image which people recognize contents on changes of image according to various eye brow changes on the face. Various changes of image were seen by length, angle and thickness of eye brow types.

The ancient Egyptians used antimony powder to blacken their brows huge black lines. In medieval times, women shaved both their eye brows and their hairlines to give a pure look.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brows were untweezed and natural. In the 1920s, when women started paying attention to their faces and their freedom, brows were tweezed, narrowed. In the 1930s, the idealized faces of Jean Harlow, Marlene Dietrich and Greta Garbo - narrow tracery of drawn on brows. The eyebrows is filled various shape of the 1950s. In the 1970s, the Disco Decade of Dreadful tastes, women were at their tweezers again, manicuring their brows. Brooke Shields's natural-looking brow would be an example of the 1980s. In the 1990s, the eyebrow designed by superstar makeup artists who determined the look of fashion model and screen star.

Key Words: eye brow(눈썹), eye brow form(눈썹 형태), eye make up(눈화장), eye brow make up(눈썹화장)

I. 서론

화장은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꾸미고 감추고 싶은 부위는 위장하는 수단으로 인간의 본능적 욕

구를 표현하면서 개인의 내면적 차이와 가치관을 나타낸다. 현대에 와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타인과 의 커뮤니티를 통해 평가, 재조정된 사회적 기호로 소속된 지역의 시대적 문화를 형성하는 분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장은 인종, 풍토 그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하며 민족, 종교, 정치, 성별, 직업등을 표현해 주어 인간의 사회적, 심미적 표현수단의 역할을 한다.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Shin
Tel. +82-11-381-8658, Fax. +82-2-450-3304
E-mail : jihyun_shin@hanmail.net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눈썹은 얼굴의 기준점으로 눈썹의 모양, 방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고 또한 색상에 따라 얼굴의 이미지를 달리 표현하여 다른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다. 얼굴이미지를 좌우하는데는 얼굴형태라는 눈썹 화장의 형태가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

따라서 인상을 좌우하고 그에 따른 화장을 하는데 눈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눈썹의 조화와 균형은 얼굴 화장을 통한 개인의 미의식 표현 뿐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눈썹은 인종, 민족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태어나고 시대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손질하여 왔다. 따라서 눈썹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징성과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눈썹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눈썹의 통시적 연구를 관심으로 첫째 눈썹의 형태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 둘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눈썹의 형태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메이크업, 복식 관련논문 및 서적을 통하여 눈썹의 형태별 특징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시대적 변천에 따른 다양한 눈썹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눈썹의 기본형태

눈썹은 얼굴의 윗 부분에 작은 점들이 모여져 하나의 선을 이룬 형태이다. 눈썹은 얼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이 집중되는 눈 주위에 위치하고, 얼굴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눈썹은 얼굴에서 윗 눈꺼풀의 윗 부분으로 상안와(上眼窩)의 바로 위에 해당하는 부위에 활 모양으로 나 있는 털로 미모(尾毛)라고도 한다. 털의 길이는 보통 7-11mm이다. 눈썹 위치와 거의 같은 좌우 상안와의 가장자리의 도톰한 선을 미궁이라고 부르며 길이는 5-6mm이다.²⁾

눈썹 털의 성장이나 눈썹 모양은 인종, 연령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눈썹은 눈썹머리와 눈썹산(눈썹의 가장 높은 부위), 눈썹 꼬리로 이루어진다.

이상적인 눈썹은 눈썹 머리가 콧망울에서 일직선으로 올라간 곳에서 시작되며 눈썹산은 눈썹 전체의 2/3선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눈썹 꼬리는 콧망울에서 45도를 이루고 눈썹머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2. 눈썹의 형태 특징과 상징적 의미

눈썹은 얼굴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부위로 눈썹의 형태, 길이, 두께 등으로 얼굴의 이미지를 달리 할 수 있다. 눈썹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 중 선의 특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선은 강직, 명료, 확실, 단순, 남성적 성격을 띄는 것으로 주지된다. 수직선은 위엄, 절대, 고상, 존엄, 고결, 희망을 나타내고 긴장감과 상승감을 주며 수평선은 평화, 친근, 안락, 평등, 정지를 나타내고 안정감을 준다. 곡선은 대개 우아하고 매력적이며 유연, 불명료, 간접, 여성, 섬세의 성격을 나타낸다. 곡선 중 기하곡선은 선의 윤곽이 확실하며 이해하기 쉬운데 비해 자유곡선은 그 반대이다.³⁾ 사선은 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눈썹의 길이가 긴 경우 어른스럽고 화려해 보이며 윤곽이 커 보인다. 눈썹의 길이가 짧은 경우 귀엽고 발랄해 보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든다.⁴⁾ 두께가 가는 눈썹은 극히 신경질적이며 가볍고, 굵은 것은 튼튼하고 무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눈썹의 형태를 좌우하는 요인들로는 눈썹의 비율, 두 눈썹 사이의 거리, 눈썹의 경사, 눈썹산, 눈썹꼬리, 눈썹머리, 눈썹머리의 곡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눈썹의 색은 두발의 색과 같은데 갈색, 회색, 검은색으로 표현한다. 눈썹 색상이 짙으면 힘차고 개성적이며 정열적인 느낌이 들지만 눈썹 색상이 흐리면 개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강은주(2003)⁶⁾는 눈썹 화장의 이미지는 눈썹의 각도, 눈썹 꼬리의 방향성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었는데 눈썹화장은 눈썹산의 각이 많이 적일수록 요염한 이미지가, 눈썹산이 수평일수록 답답한 이미지가 강함을, 눈썹꼬리가 올라갈수록 예리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눈썹꼬리가 내려갈수록 촌스럽고 둔한 이미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썹은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현상에 따라 다르게

〈표1〉 눈썹의 형태에 따른 이미지

눈썹 형태	모 양	이미지 또는 느낌
표준형 어느 얼굴형이나 잘 어울리는 기본형의 눈썹	〈그림9〉	여성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일자형(직선형)	〈그림8〉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
곡선형(둥근형)	〈그림2〉	여성적이고 성숙한 이미지
사선형(올라간형)	〈그림10〉	개성이 강하고 동적인 이미지
각진형	〈그림3〉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의 샤프한 이미지
쳐진형	〈그림5〉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이 들지만 우둔하고 슬픈 이미지를 줄 수 있음
술이 굽은형	〈그림11〉	인상이 강해 보이고 정열적인느낌의 섹시한 이미지
술이 가느형	〈그림7〉	단정하고 요염한 이미지

유래되었다. 최영순(1989)⁷⁾은 첫 인상에서 눈과 눈썹의 특징은 얼굴을 기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좋은 눈썹은 숨은 재주를 나타내며 지혜와 도량이 있어 26세부터 38세 사이에 흉한다고 하였다. 눈썹이 없는 사람은 우둔한 형, 짙은 눈썹은 뚜렷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며 눈썹이 짧은 사람은 황포하고 잔인한 형이고 쳐진 눈썹은 인색한 형, 위로 올라간 눈썹은 용맹한 기상을 나타내며 가늘고 초생달 같은 눈썹은 연약하고 부드러우나 때로 사기꾼을 뜻하기도 하며⁸⁾ 미간이 넓은 눈썹은 인자하고 뜻이 깊은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바보스러움을 나타낸다. 중국과 영국에서는 미간이 좁은 눈썹이 행운의 징표라고 여겨지는데 비해 남부 러시아, 그리스, 독일, 덴마크, 인도 등지에서는 반대로 여기었다. 또한 눈썹에 대해 씌어진 문헌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4세기)는 ‘사람이 눈썹이 빠지는 것은 바람기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⁹⁾ 눈썹은 너무 시커멓게 보이거나 너무 옅게 보여도 좋지 않고 좌우의 균형이 잡히고 깨끗하게 나 있어야 좋은 눈썹이라고 하여¹⁰⁾ 인상학에서 눈썹은 길고 청수(淸秀)하며 완만하게 굽어 둥글고 짙으며 결이 고르고 윤기가 있는 것을 양상으로 치고 있다고 하였다.

화장은 강렬한 태양광선과 곤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는 수단에서 시작하였지만 아름답게 꾸미려는 예술적 경지로도 승화시켜 오늘날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이집트의 눈화장은 눈가를 공작석 가루로 녹색테의 물고기 형태로 그렸고 후기에는 ‘호소하는 듯한 눈을 만드는’ 검은 미묵으로 표현하였다. 눈꺼풀에는 녹색 공작석 터키옥(玉), 테라코타 구리의 검은 산화물, 숯 등을 뿜아 강한 색조를 입혔다¹¹⁾ <그림1>. 눈가를 검게 칠하는 방법은 눈썹을 검게 하여 눈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집트와 비슷한 시기의 에트루스칸(Etruscan 6C B.C.)들은 남녀 모두 질푸른 아이라인을 그려 눈을 크게 보이도록 화장한 것이 이집트와 비슷하고 눈썹을 강조하여 앞의 눈썹머리가 붉은 모습이 특징적이다¹²⁾ <그림2>. 그리스인들은 미의식을 몸단장이나 인위적 장식이 아닌 의학 속에서 자연미를 찾았다. 이는 전체의 균형에서 비롯되는 조화로운 비율을 아름다움으로 추구하였다. 그리스인들은 화장을 자연에서 이탈한 것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오만스런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하였지만 화장법은 병에 그려진 그림이나 문학 작품에서 알 수 있다. 눈에는 샤프

Ⅲ. 눈썹의 시대적 특성

1. 고대 (- 5C B.C.): 이집트, 그리스, 로마

고대 이집트는 몸치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연령, 성별과 계급을 막론하고 얼굴을 꾸몄다. 화장이 크게 발달하여 눈 화장에 중점을 두었다.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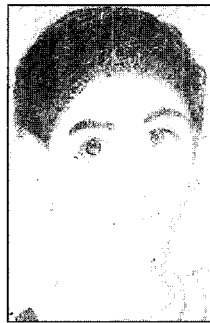


〈그림1〉 이집트의 화장
화장술의 역사 (1989). 시공디스커버리, p.16

란이나 재를 칠했고 눈썹과 속눈썹에는 계란 흰자와 암모니아로 처리한 고무를 섞어 발라 윤택이 돌게 하거나 안티몬을 발라 검어 보이게 하였다. 그리스풍의 눈썹-양 눈썹이 하나로 맞붙인 것은 검은 분으로 윤곽을 그렸다.¹³⁾ 로마는 그리이스와 마찬가지로 얼굴에 분을 바르고 눈에 안티몬이나 사프란을 칠하고 볼을 아르칸나나 연단으로 붉게 칠하는 화장을 하였다. 눈썹은 좌우가 붙도록 인위적으로 그렸다. 아라비아 여성들은 눈가를 더욱 검게 칠하였고 양 눈썹을 더욱 붉게 그렸다.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인도등의 여성들은 양 눈썹을 붙지 않게 두껍게 그렸는데 동양적 이미지가 엿보인다. 파이움의 부인(1-5세기)<그림3>은 동양적 이미지에 정리된 눈썹과 눈 화장으로 고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림2> 에트루스칸 (Etruscan)
Richard Corson (1989).
Fashions in Make Up,
p.47



<그림3> 유럽의 여인 화장술의 역사 (1989).
시공디스커버리, p.27

2. 중 세 (5C B.C. - 12C A.D.)

중세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기독교의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여성의 신체를 가꾸고 화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금지하였다. 중세의 아름다움이란 것은 젊음, 청춘기에 속하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 출산에 시달린 여성은 25세만 되면 노화가 시작되어 어린 아가씨가 아름다움의 표상이었다. 중세의 여인은 금발에 앞머리는 뽑거나 밀어 넓은 이마를 하였다. 옹황(천연으로 나는 등황색 비소 화합물)과 생석회 또는 기름에 끓인 석회의 혼합물을 뽑아내 머리카락에 발라 머리의 털을 제거 한 후 머리의 털이 다시 자라지

않도록 박쥐나 개구리의 피, 식초에 절인 양배추를 태운 재 등을 발랐다. 여성들이 눈에 띄는 화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전통을 이어 받은 비잔틴 여성들은 두꺼운 화장을 하였고 눈썹을 뽑고 검은 색으로 형태를 다시 그렸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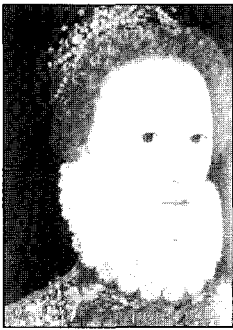


<그림4> 중세의 여인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154

3.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13C-18C A.C.)

르네상스는 문예부흥의 시대로 중세는 붕괴되었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요시 여기어 육체의 미를 찬양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메이크업은 남여를 불문하고 발달하였다. 르네상스 시기의 여성은 세 가지의 흰 것(피부, 치아, 손), 세 가지의 붉은 것(입술, 볼, 손톱), 세 가지 검은 것(눈, 눈썹, 속눈썹)을 지녀야 했다. 얼굴에는 백묵, 사프란, 입술 연지 등을 발랐다. 15세기에는 머리를 뒤로 모아 쪽을 지고 눈썹을 완전히 뽑아 가늘게 그리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이마가 더욱 넓어져 보이기 위함에서였다. 머리선이 올라가고 눈썹도 거의 없었으므로 이마를 더욱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넓은 이마가 더욱 어리고 순진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6세기에는 염색, 화장, 잔털 제거가 도회지의 유복한 계층 사이에서 널리 행하여졌다. 엘리자베스 1세(1558-1603)는 이탈리아의 화장품과 화장법을 받아들여 창백하게 보일 정도로 백납분을 바르고 이마에 정맥을 그려 넣어 투명하고 흰 피부를 표현하였고, 주름을 감추려고 얼굴 표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화장을 하였다. 눈썹은 눈과 눈 사이가 떨어져 보이기 위해 눈썹은 뽑고 작고 가느다랗게 그렸다<그림5>. 17세기의 바로크 시대 스타일은 자유분방한 울동감을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이 시대에는 홍조를 띠거나 붉은 연지의 붉은 화장을 하였다. 얼굴에

아교를 사용하여 패치를 부치는 것이 대단히 유행하였는데 달, 초승달, 별, 혜성 같은 모양을 붉은 실크로 만들었다. 눈 주위에는 '뇌쇄적', 이마 위는 '위엄 있음', 코 위는 '엄치 없음', 볼 위는 '친절' 웃음으로 생기는 주름 위는 '쾌활', 입술 주위는 '장난기 있음' ...¹⁴⁾ 등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로코코 시대(18세기)는 귀족의 부르조아적 감상과 이국적 취향을 반영하는 여성의 세기였다. 조발사와 미용사가 전성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장식적이고 과장된 질은 화장이 유행하였다. 창백한 피부에 빨보다 밑에 장밋빛에서 양홍빛에 이르는 볼 화장을 하고 눈꺼풀에 두꺼운 화장을 남여 모두 하였고 눈썹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림5〉 엘리자베스 (Elizabeth) 1세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175

4. 19세기

프랑스 혁명 (1789년)으로 귀족사회는 붕괴되고 자연주의 사상의 대두로 화장품을 자제하여 화장이 자연스러워졌다.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카센 박사는 『아녀자의 화장, 또는 미의 백과 사전』에서 '눈썹은 활 모양으로 윤기나는 털이 뾰뾰이 나 있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으며 새까맣고, 매우 가느다란 것이 아름답다. 또한 좌우의 눈썹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하였다. 19세기 후반은 빅토리아(Victoria) 여왕의 시대였는데 1861년 남편 앨버트(Albert)공이 죽은 후 여왕이 상복을 벗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이 청초하고 아름다움으로 상류층에 유행되었다. 19세기 이후부터 눈썹을 검게 하는 화장이 프랑스나 영국에서 멋내기의 일부가 되어 시작하였다. 화장품

은 파리에서만 만들어졌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일반여성들은 램프 또는 촛불에 접시를 그을려서 만든 가루를 모아 그것을 닦타 털로 만든 붓으로 눈썹과 속눈썹에 발랐다.¹⁵⁾

5. 현대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사회는 아름다움을 논하는 미적 가치 기준이 변화하였다. 1900년 부터 1950년대 까지 이상적인 여성미를 추구하였던 반면 6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미적 가치를 표현하였다.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으로 신비스럽고 강한 동양 색조가 유행을 할 때 핑크와 붉은 입술화장, 속눈썹을 위로 말아 올리고 눈썹을 검게 칠하는 등의 메이크업이 등장하였다. 눈을 옆으로 길어 보이게 하는 아이라인, 눈썹과 눈 사이에 황색분이나 강렬한 색을 바르는 동양적인 분위기의 눈화장 등이 일부 패션을 리드해 가는 여성들에서 유행 되었다.

1914년 영화 '뱀파이어(Vampire)' 에서 테디바라 (Theda Bara)는 헝클어진 머리 스타일에 작은 악마 같은 요염한 모습으로 이국적이고 금기시 되었던 화장을 표현하여 일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화장은 두껍고 눈가에 검은 코올(Kohl)을 그리고 눈썹은 검은 펜슬로 일자형으로 그리다가 각을 주어 무겁고 강하게 표현하였고 입술은 크게 그렸다<그림6>. 20년대 초기(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에는 화장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화장품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헐리웃의 영화스타 클라라 보우(Clara Bow)등이 일반인에게 큰 영향을 주어 여성들이 화장이 보편화 되었다. 짧은 헤어스타일에 창백한 얼



〈그림6〉 테다 바라 (Theda Bara)
Robyn Cosio (2000). THE EYEBROW. Regan Books, p.33

굴, 관능적이고 섹시한 이미지의 표정에 눈썹은 가늘게 보이기 위해서 뽑아서 아주 가느다랗게 얇은 눈썹을 만들고 다시 펜슬로 그리는 등 인위적으로 다듬어 이전의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그림7>. 30년대에는 스타들을 더욱 모방하고 추종하였는데 가늘고 긴 곡선형 눈썹의 유행으로 성숙한 여성의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였다. 이는 30년대를 대표했던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의 움푹 꺼진 눈과 가늘고 정교한 곡선형의 눈썹에서 볼 수 있어 신비스럽고 성숙한 이미지가 이 시기의 새로운 미의 기준이 되었다. 말린 디프릭(Marlene Dietrich)과 진 할로우(Jean Harlow)등의 스타들도 눈썹을 뽑고 가늘고 정교하게 다시 그렸는데 인위적인 눈썹을 다듬는데 한 쪽에 1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숙련된 기술로서 성숙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아나 메이 왕(Anna May Wong)은 헐리웃에 첫 번째 아시아 스타로서 가늘고 긴 일직선의 눈썹을 그려 미국적이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¹⁶⁾<그림8>. 1930년대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 메이크업으로 눈썹을 뽑아서 가늘고 곡선형으로 다시 그리고 다양한 아이 샤도우 색상으로 나타내었다.

2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성적 여신 (sex goddess)이란 말로 표현되는 육체적으로 관능적인 외모가 40년대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화장도 가늘고 신비스러운 긴 눈썹 대신 두껍고 또렷하게 곡선적인 형태를 띠는 눈썹 등 관능적이면서 생동감 있는 표현 형태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¹⁷⁾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중 화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였고 뉴욕은 패션의 중심지로 부각되었으며, 헐리웃 스타들의 영향으로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이

미지가 인기를 얻었다. 눈썹은 두껍고 곡선형의 눈썹을 그려 생동감 있는 이미지의 변화를 주었다.

50년대에 여성의 화장은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브릿지드 바르도(Brigitte Bardot)등의 영화 스타들의 영향으로 절정을 이룬다. 오드리 햅번의 굵은 눈썹,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길고 굵은 독특한 눈썹, 마릴린먼로의 가는 곡선형의 눈썹 유행은 이 시기의 눈썹 화장 특징이 풍만한 곡선을 강조한 눈썹과 관능적인 눈화장이 강조 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9>.

1900- 1950년대 까지가 이상적인 여성미를 추구하는 시기였다면 60년대에는 미의 가치관이 변화를 이루어 조화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모습들도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60년대의 미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의식과 감성의 등장으로 자유롭고 기하학적이며 심지어는 기괴하기까지 한 상징으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게 되면서 화장도 여성의 전유물에서 연령과 성별의 확대를 가져와 각 구성원의 다양한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되었다.¹⁸⁾ 화장은 인조 속눈썹을 강조하여 장식적이고 대담한 눈 화장을 중심으로 굵고 짧은 강한 색상의 눈썹을 연출하였다. 틴에이지의 우상으로 등장한 모델 트위기(TWIGGY)는 15세로 눈만 크고 빼적 마른 몸매에 머리를 짧게 하고 눈을 강조하는 화장을 하여 새로운 유행을 일으켰다. 60년대 말부터 히피(Hippies)의 영향으로 극단적이고 기하학적인 표현 대신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화장을 하였는데 눈썹 역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전세계가 불황에 휩싸인 70년대에는 세계는 디스코의 열풍이었다. 눈썹은 30년대와 마찬가지로 가늘고 정교한 눈썹형으로 표현하였고 후반으로 갈 수록 다시 개성있는 외모를 중시하여 자연스러운 눈썹형태로 변화하였다. 70년대 말에 국제적인 침체는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졌는데 저소득의 하위계급 젊은이들의 하위문화를 형성하여 펑크(Punk)패션을 유행시켰다. 펑크화장은 남녀의 구분 없이 흰 피부에 직선적으로 굵게 그린 눈썹에 눈 주위를 강한 화장을 하였다<그림10>.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70년대와는 대조적으로 8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로 강하고



<그림7> 클라라 보우 (Clara Bow)
Robyn Cosio (2000). THE EYEBROW. Regan Books, p.36



<그림8> 아나 메이 왕(Anna May Wong)
Robyn Cosio (2000). THE EYEBROW. Regan Books, p.42



〈그림9〉 마릴린 먼로 (Marilyn Monroe)
BEAUTY (2000).
UNIVERSE, p.160



〈그림10〉 핑크 화장
전선경외 3인 (2001).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p.206



〈그림11〉 브룩 실즈 (Brooke Shields)
Robyn Cosio (2000). THE
EYEBROW. Regan Books, p.121



〈그림12〉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BEAUTY (2000).
UNIVERSE, p.219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80년대를 대표하는 브룩실즈(Brook Shields)는 건강한 몸매에 짙고 굵은 눈썹으로 섹시한 이미지를 유행시켰다<그림 11>. 또한 마돈나처럼 섹시한 이미지도 많은 영향을 주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80년대 전반기에는 화려하고 강한 이미지의 화장으로 눈썹은 굵고 강하게 표현하였고 80년대 후반에는 자연과 환경을 강조하는 에콜로지 풍의 영향으로 부드러운 색상의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였는데 눈썹 역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였다.

1990년대 초의 아름다움의 개념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인식되어 운동으로 단련된 건강미가 참된 아름다움으로 인정받아 노 메이크업(no-make up)이 나타났다.¹⁹⁾ 또한 다양함과 개성이 중요시되는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현상도 나타났다. 화장도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하여 과거의 복고적 이미지의 재현, 이국적이고 민속적 영감 등 다양한 스타일, 다원주의 사회로 표현하였다. 화장 역시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눈썹은 슈퍼스타 - 패션모델이나 영화 배우 - 아티스트들의 디자인하여 큰 유행을 일으켰다. 90년대 말에는 세기말의 영향으로 미래의 두려움과 동경 등을 아방가르드한 실험적 메이크업<그림12>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여 눈썹도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얼굴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눈썹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눈썹의 형태를 이루는 눈썹의 길이, 굵기, 두께, 색상등은 개인의 개성과 미의식을 표현 할 뿐 아니라 시대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손질하여 왔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눈썹의 시대적 특성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분석한 결론 및 요약은 다음과 같다.

고대 이집트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렬한 눈화장과 그에 균형을 이루도록 강한 눈썹으로 표현하여 오늘날과 비교 하였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한 눈썹을 손질하였다. 그리스 인들은 자연미를 추구하여 전체의 균형에서 비롯되는 조화로운 비율을 추구하여 눈썹도 자연스럽게 표현 하였으나 로마인들은 인위적으로 눈썹을 키워서 좌우가 볼도록 만들었다.

중세에는 교회의 지배력이 강하여 화장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젊음을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추구하였다. 넓은 이마를 만들기 위하여 앞머리나 눈썹을 뽑고 다시 가늘게 그렸다.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육체의 미를 찬양한 르네상스 시대에는 눈썹을 완전히 뽑아 가늘고 검게 그리는 것이 유행하였다. 16세기에 엘리자베스 1세는 백납분을 바른 창백한 피부에 눈썹을 뽑고 눈과 눈 사이를 떨어져 보이고 가늘게 그리는 눈썹을 그렸다.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는 여전히 화

장이 유행 하였는데 눈썹 역시 정교하게 다듬었다. 19세기에는 화려했던 귀족사회가 붕괴되고 자연주의가 대두되어 눈썹은 자연스러워졌지만 가늘고 새까맣게 그렸다.

20세기에 들어와 눈썹은 다양하게 연출하였다. 1910년대에는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으로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눈썹을 검게 칠하였다. 1920년대 들어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과 자유로운 삶의 추구하고 대중문화의 발달 등으로 화장은 보편화되고 그에 따른 눈썹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2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의 영향으로 화장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헐리웃 스타 클라라보우(Clara Bow)의 영향으로 눈썹은 가늘게 보이기 위해서 뽑아서 가늘게 다시 그렸다. 30년대는 스타들의 영향이 매우 커서 성숙한 이미지의 정교한 눈썹을 손질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40년대에는 가늘고 신비스러운 긴 눈썹 대신 두껍고 또렷하게 곡선형의 눈썹을 그려 관능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50년대의 눈썹은 헐리웃 스타들의 영향으로 다양한 눈썹으로 나타났는데 풍만한 곡선을 강조한 눈썹과 관능적인 눈화장이 강조되었다. 60년대에는 미의 가치관이 변하여 기존에 여성미를 추구하였던 시기와 다르게 부자연스러운 모습들도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자유롭고 기하학적 모습도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어 눈썹 역시 다양한 형태로 개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화장이 대담한 만큼 눈썹은 굵고 짧은 강한 색상의 눈썹을 연출하였는데 60년대 말부터 히피의 영향으로 눈썹은 자연스러운 형태를 추구하였다. 70년대에는 30년대와 마찬가지로 정교한 눈썹을 표현하였다. 70년대 말에 나타난 핑크의 영향은 눈화장과 같이 굵게 그린 눈썹을 나타내었다. 80년대에는 섹시한 이미지의 길고 굵은 눈썹이 유행하였고 다양함과 개성이 중요시 되는 90년대에 들어와 화장도 개개인의 개성을 중요시 하면서 다양한 눈썹으로 나타났다.

눈 화장은 화장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으로 얼굴의 이미지를 달리 표현하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눈썹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여 왔지만 눈썹의 손질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정교하게 손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눈썹은 민족, 시대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

현하여 왔다. 따라서 눈썹의 형태적 특성들은 20세기 이전에는 종교, 지역, 계급적 지위에 의해 표현하였고 20세기 이후에 현대에 와서는 개인의 이미지와 성격 등 개인의 개성 표현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1) 강은주 (2003). 눈썹화장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 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6). 두산 동아.
- 3) 박규현 (1983). 조형론. 기문당.
- 4) 강은주 (2003). Op. cit., p.22.
- 5) 이경하 (1998). 눈썹 형태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4.
- 6) 강은주 (2003). Op. cit., p.20.
- 7) 최영순 (1989). 가정인상학. 명문당.
- 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6). 분장. 공연예술서적 전문출판사 예니, p.28.
- 9) 하루야마 유키오지음, 임희선 옮김 (2004). 화장의 역사. 사람과 책.
- 10) 강은주 (2003). Op. cit, p.9.
- 11) 화장술의 역사 (1998). 시공디스커버리, p.16.
- 12) 양덕재 (1998). 화장품학. 장업신보, p.47.
- 13) 화장술의 역사 (1998). Op. cit., p.21.
- 14) 하루야마 유키오지음, 임희선 옮김 (2004). Op. cit.
- 15) Ibid.
- 16) ROBYN COSIO (2000). *THE EYEBROW*. Regan Books, p.42.
- 17) 조은별 (1996).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 18) 조은별 (1996). Op. cit., p.48.
- 19) 양덕재 (1998). Op. cit., p.108.
- 20) Corson, R. (1989). *Fashions in Make Up*. Peter Owen.
- 21)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 22) BEAUTY(2000). UNIVERSE.
- 23) 강경화 (2000). *현대메이크업총론*. APC.
- 24) 이윤정 (2002). 입술 화장의 형태에 관한 연구. *인체예술학회지* 3(2).
- 25) Aucoin, K. (1997). *Making faces*. Little Brown.